

## 中央計劃 經濟體制의 評價切下 政策分析

朴 東 烈

經營學科

(1987. 9.30 접수)

### <要 約>

本考는 社會主義國家들이 70년대 중반까지 國內物價安定을 위해 운용하여왔던 自國通話에  
對한 評價切上政策의 限界를 설명하고, 70년대 중반이후 채택하고 있는 評價切上政策의 内容  
과 効果를 論하였다.

## Analysis of Devaluation Policy in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Park, Dong-Rhyul

Dept.of Management

(Received September 30, 1987)

###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limit of the upvaluation policies in domestic currency which socialistic nations had managed for domestic price stabilization till the half of 1970's.

And it also aims at analyzing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the devaluation policies of socialistic nations having been adopted since the half of 1970's.

### I. 分析의 目的과 義意

1980年代 들어 世界經濟의 特징을 몇 가지로 要約하여보면 美國의 相對的 지위약화와 이를  
招來한 日本 西獨의 國際經濟上의 위치부각, 아시아4개국을 미롯한 태평양연안국가 및 신흥  
공업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社會主義國家들의 資本主義모방, 第三世界國家들의 결속 및 東西  
貿易의 확대로 나타나며, 이를 國際金融面에서 보면 美國의 債務확대로 인한 IMF체제의 변  
색, SDR 및 유로달러의 國際流動性기능 강화, 債權國과 債務國간의 새로운 關係要望 등으

로 집약될 수 있으며, 특히 東西貿易 환대에 따르는 새로운 國際金融秩序도 요구되고 있다.

韓國經濟의 경우 1980年代 중반에 나타나고 있는 國際收支 黑字現象과 높은 經濟成長率을 지탱하여주고 있는 交易量의 환대를 감안할 때 올림픽이후 더욱 환대되리라고 보는 對共產圈交易에 대한 研究分析이 必要하리라 사료된다. 특히 韓國貿易의 고질적 문제였던 美·日에의 貿易偏重과 만성적 貿易收支赤字가 轉換되는 視point에서 輸出입플레이션으로부터 國內物價를安定시키고, 交易多邊化 특히 東西貿易 환대에 의한 對共產圈交易에 따르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分析이 必要하다고 본다.

本稿에서는 東西貿易 환대와 올림픽 개최 기간 여러가지 國제환경변화에 따라 韓國의 對共產圈 및 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第三世界經濟圈(통틀어 中央計劃經濟體制로 칭함)과의 交易이 환대되리라고 보고, 이러한 國家들이 70年代 중반까지 國내物價安定을 위해 運用해 왔던 自國通貨에 대한 評價切上政策의 限界와 70年代 중반 이후 채택하고 있는 評價切下政策이 어떠한 추이를 거쳐왔으며, 이에대한 貿易收支効果를 自國通貨貿易收支 및 外貨貿易收支効果面에서 分析함으로써 정책수단으로써 평가절하가 초래하는 効果를 논하였다.

## II. 計劃經濟體制下에서의 換率概要

換率은 두 國家貨幣間의 交換比率 혹은 一國通貨를 他國通貨로 換算한 價值을 意味한다. 다시말하면 換率自體가 一國通貨의 對外價值, 즉 一國의 貨幣單位가 가지는 對外購買力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런데 이러한 換率의 決定과 役割은 經濟體制의 特性에 따라 차이가 있다. 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에서 換率은 外換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의 상황에 따라 決定되는 즉 競爭原理에 입각한 價格me카니즘에 의해 決定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中央計劃經濟體制인 社會主義經濟에서 換率은 價格과 마찬가지로 中央計劃當局에 의해 決定된다.<sup>3)</sup> 다시말하면 中央計劃當局은 金을 基準으로하여 그들의 公定換率을 決定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公告하고 있다. 그런데 資本主義經濟에서는 換率이 對外經濟關係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社會主義經濟에서는 전통적으로 환율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 단지 會計機能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순환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할 수 없었다.<sup>4)</sup> 그리고 輸出과 輸入이 다양한 効率「노르마」와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환율은 단지 통계적인 集算을 위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도 무역구조나 방향에 영향을 거의 줄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60年代 후반에 사회주의경제가 경제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 東西貿易이 환대됨에 따라 환율의 역할을 개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경제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가격을 중앙통제에서 풀어 줌으로써 세계시장과 국내시장간의 유기적 연관을 맺게되었다. 따라서 社會主義企業은 國內相對價格構造에 효율적

1) 李章鎬, 外換管理論, 法文社, 1984, p. 43.

2) 李章鎬, 전계서, p. 49.

3) Josef Wilczynski, "Comparative Monetary Economixs", MacMillan, 1984, p. 175.

4) T. A. Wolf, "Exchange--Rate Adjustments in Small Market and Centrally Planned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 No. 3, 1978, 9.

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또한 많은 가격들이 신축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환율은 전통적인 會計役割보다 더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社會主義換率은 金塊리티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또 세계시장에서의 충격을 국내시장에 전파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의 經濟運用方式에 따라 환율은 과대평가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과대평가되면 수출이 억제되고 수입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옴은 周知의事實이다. 그러므로 환율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는 환율을 조정(換率引上, 즉 評價切下)하므로써 國內一般物價水準의 上昇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억제시킴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는 1970년대 들어서 貿易赤字가 累積되고, 對西方債務가 累積되어 硬貨의 不足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評價切下를 斷行한다면 貿易收支를 改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央計劃當局者들은 많은 價格의 伸縮性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요한 생산물가격에 대해서는 제한된 신축성을 허락하거나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환율조정의 효과는 자본주의경제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실제 1970년대 말까지 유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구권의 국가들은 평가절하를 정책수단으로서 기피하고 오히려 평가절상을 실시해오다가 80년대 들어 시장개방과 함께 평가절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章에서는 사회주의경제에서의 평가절하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회주의경제에서 어떻게 환율이 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평가절하의 구체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分析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문제의 대상이 대체적으로 사회주의국가란 점에서 資料가 빈곤했다는 점과 대부분의 자료가 시기적으로 오래 됐다는 점이나 세계경제사의 흐름을 볼 때, 이들 국가들의 자본주의 생산방식도입 내지 수출방식의 모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런대로 向後에 나타날 평가절하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III. 評價切上政策의 運用推移.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는 그들의 通貨를 金을 기준으로하여 公定塊리티를 결정하고 있으며, 他國의 통화에 대한 환율도 金塊리티關係에 따라 決定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公告하고 있다.<sup>5)</sup>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환율에 의해서 사회주의국가의 화폐는 과대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 暗市場換率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정환율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부의 허가없이는 외환거래를 하지 못하게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제재를 하리라는 當局의 宣言때문이었다.

5) 자본주의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개도국 및 기타 외환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예가 많은데 사회주의 국가의 외환관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金重雄, “한국의 국제수지 외환론”, 法文社, 1977, pp. 81~83.

趙東善, “외환개론”, 法文社, 1971, pp. 103~111.

자본주의 국가들은 Nixon의 특별조치가 있었던 1971年 12月 8%의 金公定價格引上 이후 계속하여 引上하여 왔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종전의 金塊리티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그들의 화폐는 사실상 재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소련 루블의 金含有量은 純金 0.987412g이었으며, 이는 1961년이래 계속 안정되어 왔다. 따라서 소련 1.00루블에 대한 美國 달러率은 1971년 12월 첫번째의 평가절하이전에는 \$1.11이었으나, 1973년 2월 두번째의 평가절하이전까지는 \$1.21이었다. 그리고 소련國家銀行이 1981년에 적용한 美달러率은 \$1.32이었다.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複數換率制度를 採擇하고 있는데, 外形의인 貿易에 적용하는 기본환율이외에, 非商業換率(non-commercial rates)을 그들의 관광수입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sup>6)</sup> 基本의인 商業換率은 (낮은) 生產者價格水準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반면에 非商業換率은 관광자에게 적용되는 小賣價格(무거운 去來稅포함)水準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되는 非商業換率은 當事國間의 協商에 의해決定되나, 資本主義國家에 적용되는 非商業換率은 사회주의 국가가 一方으로 결정해 버린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업환율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없는 환시세는 환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또 독단적인 환시세조작을 금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말 폴란드內의 西方觀光客에게 적용한 환율은 기본환율보다 400% 높았으며, 폴란드인이 소련을 여행하는 경우는 무려 3800%가 높았다. 또한 他國의 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당사국의 화폐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의 관광객들이 일정한 期間이상을 체류하는 경우, 特別보너스여행자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海外에서의 送金에 대해서도 매우 好意的인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外交의인 支出이나 資本去來를 포함하는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特別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暗市場환율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체코의 경우, 1979년 공정기본환율은 \$1.00=Koruna5.40이었으며, 루블지역에 대한 非商業換率은 \$1.00=Koruna6.30, 체코코루나와 교환되는 硬貨에 적용되는 一般的인 非商業換率은 \$1.00=Koruna11.36, 1日當 100弗을 초과하는 코루나와 硬貨의 교환에 적용되는 보너스非商業換率은 弗當 12.48코루나, 그리고 체코에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은 弗當 31.36코루나이었으며, 동시에 暗市場換率은 弗當 26~32코루나였다. 80년대 초기 사이의 사회주의 국가 환율은 다음 <表1>과 같다.

&lt;表1&gt; 社會主義國家의 換率

1979년 중반

國 家	通貨單位	金塊리티	美\$1.00當 自國通貨		
			기본환율	비상업환율	암시장환율
안마나이	Lek	0.177734	4.10	9.75	35.00
불가리아	Lev	0.759548	0.97	—	2.80
中 共	Remminbi	0.392480	1.97	—	2.40
필 바	Peso	0.888671	0.83	—	8.60
체코	Koruna	0.123426	5.40	11.66	27.50

6) 이는 우리나라의 복수환율제도와 대동소이한 바, 우리의 경우 외제품수입과 반제품 내지 원자재수입이 적용하는 환율이 다른데 비하여, 이들의 二倫價格體制(Two-tire price system)는 법률도도 정당화되고 있다. Josef Wikzynski, op. cit., p. 211.

동      독	DDR Mark	0.399902	2.55	--	9.90
한      가      리	Forint	0.075696	8.51	20.85	38.75
北      韓	Won	0.740559	0.96	2.02	10.00
몽      고	Tugrik	0.222168	3.32	5.04	18.00
폴      란      드	Zloty	0.148112	3.32	33.20	123.00
루      마      니      아	Lei	0.988442	4.97	12.20	123.00
소      련	Rouble	0.987412	0.75	--	3.60
베      트      남	Dong	0.302269	2.44	4.44	9.50
유      고	Dinar	0.433123	18.20	--	18.65

資料 : J. Wilczynski, 전계서, p. 178.

그런데 70년대 중반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은 환율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나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오랫동안 고정되었던 전형적인 换率은 소위 「豫算均等化支拂(Budgetary equalization payments)」을 채택함으로 가능하였다.<sup>7)</sup> 자본주의 국가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기전인 1970년대초까지는 공정기본환율에 의해서 사회주의 화폐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되었었다. 이에따라 수출은 억제되었고 수입은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石油波動이후 서서히 서방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이러한 收支를 역전시키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들은 對外貿易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西方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광 및 용역수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에 의해 그들의 국제수지를 급속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活動評價 基準으로 이윤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의 성과에 따라 對外貿易에서 보다 많은 自由가 주어지자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환율과 가격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조성은合理的인 换率運用이 하나의 정책과제로 대두하는 계기가 되는데, 1971년 7월 브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코메콘 25차총회에서는 앞으로 그들간에 복수환율을 폐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서 회원국들은合理的인 가격형성, 특히 생산비, 감가상각율, 자본사용료, 거래세, 직접세, 무역마진율, 이윤율인상 등과 같은 가격결정요소에 대해서 단일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sup>8)</sup> 그리고 그 다음단계는 자본주의 화폐에 대한 균형환율(Equilibrium rates)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어느 한 東獨 경제학자에 따르면 장차 이상적인 사회주의 환율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한다.<sup>9)</sup>

(1) 사회주의환율은 국제적으로 일관성을 갖어야하고, 當該國通貨의 구매력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7) 이는 서방의 Inflation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입비용상승의 경우 국내수입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면에 수출업자에게는 수출가격상승에 따라 조세를 증대시켜 서방의 Inflation 영향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도에 의해 환율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8) 이러한 내용은 제25차 총회에서 채택된 "Complex Programme of Further Intensification and perfection of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ist Economies Integration"에 잘 나타나 있다.

9) G. Huber, "The Planning and Perfection of Int'l Socialist Special and Co-operation", 「Wirtschaftswissenschaft (Economic Studies)」, 1978, 4, p. 518.

- (2) 환율은 장기계획을 통하여 하기 위해서 국내가격과 같이 장기간 안정되어야 한다.  
 (3) 환율은 단지 수출 및 수입보다는 생산규모 및 산업구조와 관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즉 환율은 고매콤하거나의 효율적인 특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70년대 중반부터 西方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사회주의국가는 자국통화를 재  
 평가, 즉 評價切上하므로써 (表27를 참조) 자본주의 화폐에 대해 덜 과대평가되게 하였  
 고, 농사에 複數換率의 수도 전보다 줄었다. 西方硬貨에 대해서 非商業換率을 소련과 유  
 고가 일찍이 1960년대 중반에, 동독과 불가리아가 1970년대 중반이후에 각각 폐지하였  
 다.

〈表1〉 사회주의 국가의 평가절상(1976~80)

단위: 美貨 1弗當 자국통화 단위

國 别	內 容
인 봄 바 니 아	4.61에서 4.10Lek로
불 가 리 아	1.08에서 0.94Lv로
中 共	2.27에서 1.97Renminbi로
중 바	0.92에서 0.83Peso로
체 코	6.63에서 5.40Koruna로
헝 가 리	10.81에서 8.51Forint로
폴 란 드	3.68에서 3.32Zloty로
소 렌	0.83에서 0.75Rouble로

資料: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1982. 6.

그리고 〈表-3〉에 보는 바와 같이 暗市場換率도 낮아졌는데 이는 公正基本換率이  
 1960년대 후반에 그려졌던 것보다도 사회주의 화폐가 덜 과대평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와 현상은 유고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차차 全동구  
 선국 및 중앙계획경제체제국가들에게 파급되고 있는데, 유고의 경우 1961년 非商業換率  
 을 신도적으로 폐지한 이래 10여 차례 평가절하를 단행하였고 현재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도 자연 발생적인 단일환율을 시행하고 있다. 즉, 1973년 一連의 外國換市場을 개설하여  
 그안에서 유고의 20個 은행이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래, 1975년 이후부터는  
 中央銀行인 유고 國立銀行이 필요하다면 暗市場에서 Dinar를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더 나아가서 1980년대 들어서는 일련 시중은행과 국가가 협용하는 개인기업도 환조작을  
 할 수 있게되어 暗市場換率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과 정책추진은  
 기타 사회주의국가 및 세3세계국가들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3〉 社會主義 國家의 暗市場 換率推移

國 别	1972년 중반	1979년 중반
불가리아의 Lev	3.70	2.80
中共의 Renminbi	3.70	2.40
체코의 Koruna	40.00	27.25
동독의 DDR Mark	14.00	9.90
폴란드의 Zloty	140.00	123.00

루마니아의 Lei	35.00	35.00
소련의 Rouble	5.20	3.60

資料 : J. Wilczynski, 전재서, p. 181.

#### IV. 評價切下의 貿易收支效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특히 개도국의 경우 평가절하는 일반적으로 무역상품에 대한内外價格의 상대적 변화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수지개선효과를 가져온다.<sup>10)</sup> 반면에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에 따른 국내자원에 대한 총수요증대와 수입원자재의 자국화폐비용증가로 인한 생산량증대를 통한 인플레압력을 받게된다.<sup>11)</sup>

周知한 바와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유고를 선두로 1970년대 후반부터 종래의 과대평가되었던 그들의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논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두절로 나누어 먼저 實物經濟上의 效果를 주로 分析한 다음 이를 금융경제면에서 自國貨表示 貿易收支面과 外貨表示 貿易收支面으로 나누어 詳論하기로 한다.

##### I. 實物經濟上의 효과

이를 위하여 몇가지 假定을 導入하기로 하자<sup>12)</sup> 먼저 여기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는 세계시장가격에 순응하는 小國(Small Country, 즉 완전경쟁을 가정)이라 하고, 이 小國은 완전고용상태에 있으며 거래되는 商品은 모두 最終財라 하자. 그리고 이 最終財는 가격이 固定된 非貿易商品(NT), 가격이 固定된 貿易商品(A), 그리고 價格이 世界市場의 外貨價格과 직접적으로 링크되는 貿易商品(B)의 세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들 商品間에는 完全代替가 가능하고, 또 이들 商品에 대한 選好度도 同一하다고 하자.

그러면 B商品의 국내가격은 外貨表示價格과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단행되는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승한다.<sup>13)</sup> 그리고 A商品은 當局에 의하여 국제시장가격이나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그 국내가격이 결정되고 또 고정되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A商品이 덜 과대평가된다.<sup>14)</sup>

이제 두 평가절하의 효과를 그래프를 利用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평가절하가 이루어졌을 경우 實質殘高效果(Real-Balance Effect)가 없다고 하자. 따라서 PNT(NT의 국내가격)와 Pa(a商品의 국내가격)이 당국에 의해 고정되므로 하나의 고정가격셋

10) 金重雄, 전재서, pp. 90~94.

11) Fritz Machlup, "Int'l Monetary Economics", George Allen & Unwin 1970, part 2, pp. 167~2223(ch. VIII : 상대가격과 총지출, ch. IX : 교역조건直과)

12) T. A. Wolf, op. cit, pp. 226~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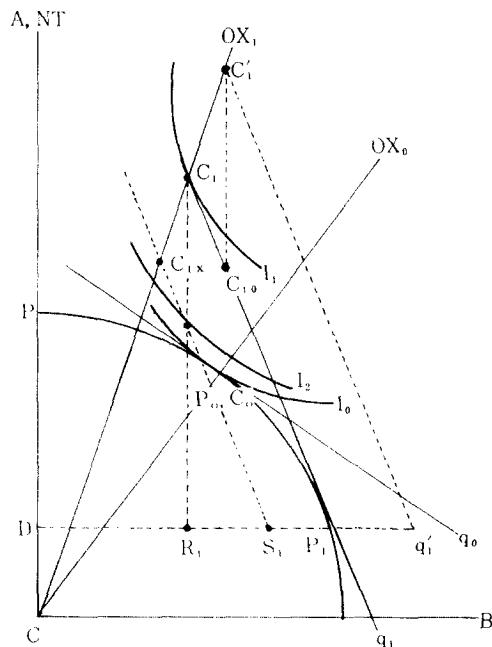
13) 이를 수식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B상품의 국제가격을  $P_b, d$ , 외화표시가격을  $P_f, f$ , 그리고 공정환율을  $e$ 라 할 때,  $P_b, d = e \cdot P_f, f$ 의 관계식이 성립된다. 이때  $e$ 의 비율만큼 평가절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P_b, d = e$ 가 성립한다.

14) A商品의 국내가격을  $P_a, d$ , A상품의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과대평가변수를  $\beta_a$  ( $\beta_a = q_a / q_d$ ,  $q_f = P_{d,f} / P_{a,f}$ ,  $q_d = P_{b,d}$ )라 하면  $P_a, d$ 는  $e \cdot P_a, f \beta_a$ 식이 성립된다. 그리고  $\beta_a = 1.00$ 에 따라서 (B상품의 국내상대가격)  $= (B$ 商品의 세계상품가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e$ 만큼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beta_a = -e$ 가 되어  $e$ 만큼 A상품의 과대평가가 줄어든다.

트로 간주하기로 한다.

<그림 I>에서 PP曲線은 생산가능곡선을 나타내고 I曲線은 사회무차별곡선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초에는  $C_0$ 점에서 A, NT 및 B의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A 및 NT와 B間의 상대가격은  $q_0$ 였다. 그러나 평가절하가 단행되면 환율상승률만큼 B價格을 상승시키나, A 및 NT가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은 없다. 따라서 B의 상대가격이 비싸져  $q_0$ 에서  $q_1$ 으로 변했고  $C_0$ 도  $C_1$ 으로 이동했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자는 B商品의 생산에 더 많은 생산요소를 투입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A와 NT를 구입하려고 한다. A商品에 대한 수요증가는 가격의 변화없이 수입에 의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NT상품의 경우엔 가격이 고정되고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B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NT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이는 A의 수입증가분을 초과하는 B의 공급증가로 나타내진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평가절하후 생산자는  $P_0$ 에서  $P_1$ 으로 공급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는  $C_1$ 에서 소비하려고 원하기 때문에 A 및 NT에 대해서는  $C_1$ , R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제 임의적으로  $q_1$ 가격조건에서 A에 대한 초과수요를  $C_{1a}R_1$ 이라 하자. 그러면 나머지  $C_1C_{1a}$ 는 충족시킬 수 없는 NT에 대한 초과수요가 된다. 그리고 B를  $R_1$ ,  $S_1$ 만큼 수출하므로써 얻은 수입으로  $C_{1a}R_1$ 만큼 A를 수입하게 된다. 그런데 B의 총수출이  $R_1P_1$ 이므로  $S_1P_1$ 만큼의 초과수출이 생기는데 이  $S_1P_1$ 은  $q_1$ 조건으로 평가한  $C_1C_{1a}$ 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가격조건으로 보았을 때 경제는 균형을 이루게 되고 무역수



〈그림 1〉 平價切下의 貿易收支效果

지는  $S_1P_1$ 만큼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다음 2가지의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첫째, B와 NT間に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A에 대한 초과수요는  $C_1R_1$ 이 되고, 따라서 무역은 국내가격조건으로 볼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 ( $R_1P_1 = C_1R_1 \cdot q_1^{-1}$ )

둘째, B와 A間に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C_1R_1$ 은 NT에 대한 초과수요를 나타내고, 따라서 무역은 B의 수출만큼( $R_1P_1$ ) 흑자를 이루게 된다<sup>15)</sup>. 그런데 이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은 NT에 대한 가격을 직접적으로 고정시키고 또 총족시킬 수 없는 초과수요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절하는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NT와 B間に 대체가 가능한 만큼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NT에 대한 초과수요를 감수하는 한 B의 수출초과는 계속된다<sup>16)</sup>.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아직도 NT에 대한 절대적인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NT상품을 판매하는 건물 밖에 소비자들은 길게 줄을 늘어서야 하고, 또 NT에 대한 수요를 A나 B로 대체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이 경우 A의 수입을 늘리고 B의 수출초과를 줄이게 된다면 소비점은  $C_a$ 에서 右上向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貿易商品과 非貿易商品 間(예를 들면 기계·對식품 및 서비스)에 소비대체가 없거나 거의 없다면 소비점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NT에 대한 초과수요가 강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A의 非自發的인 재고증가와 B의 수출초과감소를 가져온다면 노동자들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생산은 생산가능곡선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평가절하의 正의 무역수지효과는 만일 실질잔고 효과가 없을지라도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평가절하의 즉각적인 효과는 만일 소비자들이 그들의 現金발란스실질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보다 크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평가절하는 B商品에 대한 相對價格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물가수준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최초의 균형수준에서 시작하여 현금에 대한 초과수요를 야기시킬 것이고, 총체적인 지출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시장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보다 큰 대체效果를 가지는데 이는 B의 상대가격의 최초의 변화가 뒤이은 NT와 A의 가격상승으로도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총지출에 대한 실질잔고효과는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적어질 것인데 이는 단지 B가격만이 상승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가격수준에는 충격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평가절하 후 단기에 있어 새로이

15) 이는 신축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R. Dornbusch의 모형과 비슷한데, 이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이 불변한다고 가정할 때 평가절하로 정부는 NT에 대한 초과수요만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NT의 가격을 최초수준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R. Dornbusch, Devaluation, "Money and Nontrade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1973, 12, pp. 871~880.)

16) 이는  $C_1$ 점에서 무차별곡선  $I_2$ 의 기울기가  $q_1$ 의 기울기보다도 크다는(절대치는 작다) 사실로 나타내진다.

소망되는 소비점은  $C_1$ 의 左下向에 있게된다(<그림 I>에서는  $C_{1x}$ ). 만일 B와 NT間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심심 단기소비점은 또한  $C_{1x}$ 가 될 것이다( $S_1P_1$ 과同一한 正의 무역수지개선을 포기하고). 다른 국민의 경우에, 즉 A와 B間에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O_{xi}$ 선을 따라  $C_{1x}$ 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할 것이나, 사실은  $P_1D$ 선상의  $R_1$ 左側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새로운, 높은 상대가격 수준에서 NT의 생산 및 소비는 OD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 및 NT가 B와 대체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소망스런 소비점은 다시  $C_{1x}$ 가 될 것이나 실질소비점은 실질잔고 효과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보다 큰 무역흑자의 결과로  $C_{1a}$ 의 左下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의 평가절하를 보다 큰 단기무역흑자를 가져온다. 그리고 소비자는 보다 균형에 가깝게 접근하는 데 이유는 소비자의 실질현금잔고가 감소됨에 따라 그들의 총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무역흑자는 국내통화공급을 증가시키고 총수요는 재고와 무역흑자가 사라질 때까지 증가한다. NT와 B間에 대체성이 없는 경우 실질잔고가 최초의 수준으로 회복하면  $C_1$ 에서의 소비와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의 현금잔고의 증가는 없게 된다.

또 만일 A와 B間의 대체가 없다면 실질잔고가 최초수준으로 회복되면 소비자는  $C_1$ 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무역흑자는  $R_1P_1$ 이 된다. 그리고 B의 수출초과, 즉 무역흑자가 사라질 때까지 통화공급을 계속 증대시킬 것이고 가격선을 밖으로 이동시키고, 총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면 NT에 대한 초과수요와 더불어 소비 및 생산은  $P_1$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불균형은 통화공급의 증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역흑자와 더불어 다른 시장으로 수요를 전환시킴으로써 시정할 수 있다.

A, B, NT間에 대체가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에 현금밸런스의 최초수준의 회복은 소비점을  $C_1$ 으로 가져오고  $S_1P_1$ 만큼의 무역흑자를 가져온다. 그러나 국내 통화거래에 흑자가 있는 한 통화공급은 증가되고 국내현금바alan스의 실질가치는 그의 최초수준을 넘어서 계속 증가될 것이고, 총지출은 B의 수출초과가 없어질 때까지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흑자는 NT에 대한 초과수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속됨과 더불어 없어지게 된다(<그림 I>에서 가격선이  $q_1$ 우측으로 이동(즉  $q_1$ )시켜 소망스러운 소비점은, 실질소비점이  $C_{1a}$ 와 무역균형을 이루면서  $C_1$ 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평가절하의 장기적 효과를 보면, A와 B間에 약간의 대체가 가능한 한, 국가의 대외무역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무역이 국내가격조건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C_{1a}$  및  $C_1$ 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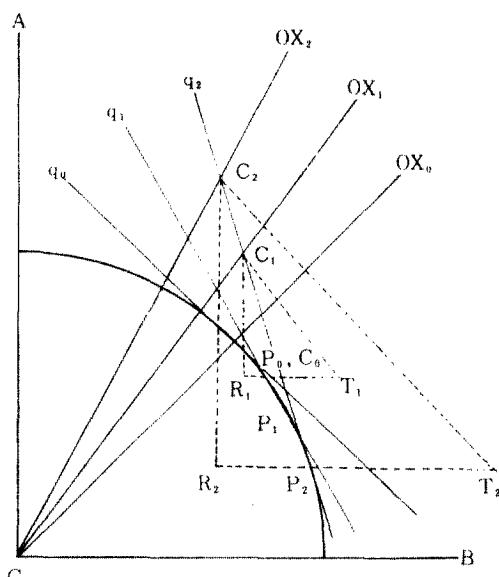
## 2. 自國通貨貿易收支 및 外貨貿易收支效果

여기서는 自國 및 外貨貿易收支에 대한 평가절하의 가능한 여러 가지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A와 B의 두가지 무역상품만이 존재하고 A의 국내가격은 당국에 의해 고정된다고 가정하자.

먼저 <그림 II>에서 평가절하 이전에 생산자 및 소비자는  $P_0C_0$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예산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이점에서 A, B의 국내상대가격은  $q_0$ , A, B의 순수출은 없다고 하자. 또한  $C_0$ 에서 국내 및 세계시장의 상대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다가 평가절하가 단행되어 국내 상대가격이  $q_0 \rightarrow q_1$ 으로 상승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A의 생산의 희생하고 B의 생산을 늘리게 된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소비점을  $C_0 \rightarrow C_1$ 으로 이동시킨다. A에 대한 초과수요는  $R_1P_1$ 만큼의 B의 수출에서 얻은 输入으로 購入하여 충당된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P_1$ 과  $C_1$ 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정부예산은 이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또 평가절하는 국내상대가격을 세계시장가격보다 높혀 A상품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싸졌으나 세계시장에서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은 A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내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의 차이만큼 순손실을 입게된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정부의 가격균등화지불(즉 적자예산)로 보상되고 정부의 순외환보유고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 II>에서  $C_1R_1$ 만큼의 A의 순수입은  $R_1T_1$ 만큼의 B의 순수출로 보상되어야 하나 B의 수출도 단지  $R_1P_1$ 만큼 증가되었다. 따라서 외화적자(B로 환산해서  $P_1T_1$ 만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자.

먼저 A는 순수출, B는 순수입, 그리고 B가 비교적 낮은 국내가격수준에 있는 경우, 둘째, A는 순수입, B는 순수출, 그리고 B가 비교적 높은 국내가격수준에 있는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평가절하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자국의 외화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 <그림-II>에서 본 바와같이 외화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그림 2> 自國通貨貿易 및 外貨貿易收支效果

17) A상품의 국내가격은 고정되었으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은 환율이 인상된 만큼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또 가정을 바꾸어 평가절하의 전에 생산 및 소비가  $P_1$  및  $C_1$ 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B의 순수출은  $R_1P_1$ 과 같고 A의 순수입은  $C_1R_1$ 과 같다고 하자. 여기서 평가절하는 국내상대가격을  $q_2$ 로 더욱 상승시켜 국내생산 및 소비를 각각  $P_2$  및  $C_2$ 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무역은 국내가격조건에서 균형을 이루나 국내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과의 차이는  $q_2 \rightarrow q_0$ 로 더욱 벌어지며 B상품으로 표시한 외화무역수지는 적자폭이  $P_1T_1$ 에서  $P_2T_2$ 로 더욱 악화된다.

## V. 政策手段으로서의 評價切下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당국자들은 그들이 NT상품에 대한 초과수요와, 현금발란스에 대한 초과수요를 혼용하면서 국내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한, 평가절하를 통하여 그들의 자국화폐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평가절하로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상대가격간의 관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외화무역수지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B와 NT間에 대체 탄력성이 적을수록, B와 A間에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그리고 A 대한 과소평가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평가절하에 의한 외화무역수지의 개선효과는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평가절하의 외화무역수지에 대한 개선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차치 하더라도 사회주의당국자들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평가절하는 채택하지 않으려하는데 여기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당국자들은 무역수지개선에 다른 실질압습(Real Absorption)의 감소를 현재여전하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8)</sup> 이 경우는 실질압습의 감소가 실질생산의 감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B상품(보다 높은 가격)과 NT상품(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압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sup>19)</sup>

둘째로 실세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달러와 루블의 두가지 시장에서 무역을 하고 있다. 달러시장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는 다소 가격순응자(Price-taker)의 입장에 있으며, 루블시장에 있어서는 「코메론」가격 체계 내에서 쌍무협상에 따른 대외무역가격에 루블貨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상품의 지역별 무역구조에 따라 평가절하는 루블시장에서의 교역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예를 들면 B상품의 수출루블가격은 더욱 낮아지고 A상품은 수입루블가격은 더욱 높아질 경우). 이는 앞의 모델에서 언급한 바 보다 더 적은 무역수지개선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세째로 B상품의 국내상대가격 인상은 세계시장에서의 상대가격과 더욱 乘離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 구조간에 점진적이고 캐략적인 일차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두가격간의 乘離가 더욱 커지는 것은 국내 압습의 감소와 더

18) Absorption=GNP+재고감소+수입-수출(趙淳, “經濟原論”, 法文社, 1977, pp. 447~450).

19) 물론 이 경우는 시장경제내에서의 의사결정자들에게도 같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으나, 그들은 확대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평가절하의 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

불어, B상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 무역수지의 개선을 어렵게 한다. 만일 B의 국내상대가격이 이미 너무 높아있다면 평가절하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네째로 사회주의 정책결정자들은 시장경제의 정책결정자들보다 실질소득의 분배에 대한 상대가격의 변화효과에 대해 더욱 민감한 것 같다. 만일 B의 가격이 오른다면 이 상품의 소비는 줄어든다. 그리고 NT의 상대적인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NT에 대한 초과수요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절하로도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낮은 소득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유에서 보다 민감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사회주의 국가는 대체적으로 고정된 외화가격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모든 상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과 일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商品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B의 외화가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낮아진 세계시장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외화수입은 평가절하와 더불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수요가 탄력적일지라도 서방의 반덤핑규제나 비관세장벽으로 외화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 없다.

여섯째, 실제로 있어서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은 B상품가격을 국내와 해외시장에 차별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시장에 대해 충분한 시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가정이 지켜질 수 없으며, 또한 평가절하로 국내상대가격에 대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론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物的인텐티브가 단지企業의 이윤증가에 기초한 정도만큼, 그리고 기업의 결과로서의 이윤은 보다 변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앞서 살펴본 모델과 같이 자원을 배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번째 실제에 있어서 무역상품과 비무역상품은 국내소비에 있어 대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일 많은 기업들이 複合生產企業이라 할지라도, 기업은 무역상품이나 비무역상품에 특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두가지 상품을 다 생산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도 무역 및 비무역상품생산간의 대체를 권장하지도 않는다. 사실 A와 B간의 대체를 무시할 수 있다면,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압력을 더욱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평가절하로 B가격이 상승된다면 B생산자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윤은 투자 및 기금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A나 NT부분에 있어서의 상용하는 감축이 없이도 B부분에 있어서의 투자수요 및 화폐소득이 증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일 실질잔고효과와 비슷한 것이 없다면, 무역상품과 비무역상품에 대체성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낮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평가절하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A상품이 대체상품이 아니고 오히려 수입되어 B상품의 생산에 투입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같은 경우 평가절하의 효과는 분명치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압력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내부가가치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結論

사회주의 경제가 종래의 경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가격체제를 외화시키고, 국내가격을 세계시장가격과 점차 링크시킴에 따라 환율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만일 소비자들이 현금밸런스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또 소비자들이 비무역상품에 대한 초과수요를 감수하는 한, 평가절하를 통하여 무역수지를 개선 시킬 수 있다. 이는 평가절하로 비무역상품의 국내상대가격을 낮추고, 또 비무역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한 신축적인 가격의 무역상품의 수출초과분(국내가격으로 평가한)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금밸런스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시장경제에서의 평가절하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일부 상품의 가격경직성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보다 큰 대체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절하에 의한 외화무역수지의 개선방향과 크기는 자국화폐무역수지에 대한 효과와 다른데, 이는 일반적으로 일부 무역상품에 대한 국내가격의 고정하는 국내상대가격을 세계시장 상대가격으로부터 격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가절하에 의한 무역수지개선의 가능성은 고정가격의 비무역상품과 신축적인 가격의 무역상품간의 대체정도가 보면 클수록 많이지고, 작을수록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대체정도가 클수록 가격이 고정된 무역상품에 대한 최초의 국내과대평가 정도는 평가절하율에 비례하여 더욱 크게 된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회주의 정책결정자들은 해외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교역조건이 불변이더라도 자국화폐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한 율의 재평가는 이론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수준과 해외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내 상대가격효과와 분리시켜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충격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별도의 계속적인 연구가必要하다고 사료된다.

### 參考文獻 및 論文

1. 金重確, “韓國의 國際收支 外換論” 法文社, 1977.
2. 李章鎬, “外換管理論”, 法文社, 1984.
3. Josef Wilczynski, “Comparative Monetary Economics”, MacMillian, 1984.
4. Fritz Machlup, “Int'l Monetary Economics”, George Allen & Unwin, 1970.
5. 海外經濟研究所, “社會主義經濟와 인플레이션”, 「東西經濟」, Vol. III, No. 3, 1978, 9.
6. Thomas A. Wolf “Exchange—Rate Adjustments in Small Market and Centrally Planned Econo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 No. 3, 1978, 9.
7. G. Huber, “The Planning and Perfection of Int'l Socialist Specialization and Co-operation” 「Wirtschaftswissenschaft」, 1974, 4.
8. R. Dornbusch, “Devaluation, Money and Nontraded Goods”, AER, 63, 1973, 12.